



4박 5일의 꿈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 강 은 주



새벽 4시 어스름한 새벽기운을 느끼며
떠날 준비를 서두른다.

“내일 아침 엄마 여행 가는데 인사해야지”
하던 딸아이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마음의
인사를 나누고 엄마가 여행 가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췌근췌근 들리는 아들의 숨소리를
뒤로 하며,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라고 친구
가 사 준 이해인 수녀님의 시집을 챙겨 재
촉하며 공항을 향한다.

약속시간 7시, 조금 이른 시
간. 속속히 연수팀들이 합류하
면서 우린 4박 5일의 연수를
위하여 연수단장님인 박정일
교수님과 이세훈 교수님 등
29명이 남진아 해의 작은
섬 싱가포르를 향하여 비행
기에 오른다.

심한 광음과 진동을 한
차례 거듭하고 5시간 45
분을 날아 1시간의 타임
머신을 뚫고 도착한 곳
창이 공항.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숙소에
짐을 풀고 첫날의 싱
가폴관광에 나선다.

센토사섬. 말레
이어로 「평
화와 고요」의 뜻
을 지닌 센토사
섬. 예전엔 해적
들의 거점이었던

터라 기가 센 곳이라서 용의 기세로 섬을 다스리기 위해 곳곳에 용상이 세워져 있다. 지금은 평화와 고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섬이다. 이 섬에서는 순환버스와 모노레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행자 나무의 안내를 받으며 수족관입구에 200년 된 거북이(중국계는 장수의 상징으로 대부분 가정에서도 키운다고 함)와 인사를 나눈다. 지하 5m, 길이 83m의 아크릴터널을 수평이동벨트를 타고 마치 바다 속에 있는 듯한 착각 속 빠져 9feet의 백상어, 해초처럼 생긴 해룡, 부끄러워 바위틈에서 나오지 못하는 말레이장어 등등 이름 모를 아름다운 고기들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 일행은 스팀 포트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모노레일을 타고 센토사섬 일주와 함께 외곽에서의 싱가포르의 야경을 만끽한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스타쿠즈호의 700개 객실의 웅장함,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유수의 빌딩들, 싱가포르의 정신적 상징인 머라이언상을 끼고 철 지난 해변을 감돌다 육지에 내려 우린 분수쇼를 보기 위해서 두른다. 레이저와 분수가 어우러져 세계 각국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분수가 대형스크린이 되어 역사의 한 드라마가 펼쳐진 것을 오늘의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을 마무리한다.

드 깨날. 모닝콜 소리에 놀라며 시작한
골 다.

첫 일정은 주룽공업지역안에 있는 National Steel LTD를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회사소개를 받는다.

총 근로자 720명, 생산품은 철강제품, 연간 생산량은 71T, 회사자체에서 운영하는 크리닉에는 의사 1인 간호사 3인과 응급구조사 100인을 갖추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의 공장전담의사가 모두 4명인데 그중 한명이란다. 그리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는 없고 근로자 100명당 응급구조사 1명을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한다. 제조과정 중 원재료와 폐철이 용해로 전처리 과정에서 방사선 물질 검사기기를 통과하여 방사선물질이 발견되면 신고를 하여 원인조사를 하고, 통과되어 용해로에 들어가면 용해 후 용해 물을 2차 방사선물질검출검사를 하여 문제가 없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공장 크리닉에는 우리의 일반의원 기능과 소음성난청을 진단할 수 있는 부스를 갖춘 청력측정실과 자체 엠블런스도 있었다.

우린 현장순시를 위해 헬멧과 귀마개를 착용하고 현장순시를 하였다. 작업공정은 에어컨 설비가 되어 있는 중앙 관제실에서 9개의 모니터를 통하여 각각의 공정을 control 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인데, 근로자 10명중 3명은 소음성난청이라고 한다.

방문기념으로 한국에서 준비해 온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자 앞으로 방문할 때 이런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한다. 이유인즉 「공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정문 밖까지 배웅을 받으며, 다음 일정을 위해 김치찌개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말레이시아의

제2의 도시 조호바루로 간다.

말레이 반도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해상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말끔한 싱가포르와는 달리 조금은 정리가 안된 느낌, 말레이시아에 대한 첫 인상이다.

이슬람사원을 처음 방문하였으나 회교도가 아니면 사원역내를 들어갈 수 없다 하여 회교사원의 외관만 구경하였다. 말레이시아 민속마을인 깎풍 마을에 있는 가정집을 방문하여 열대과일로 만든 다과를 대접받고, 잠깐의 민속춤을 관람한 후 회교무덤을 둘러보았다. 무덤은 작으며 머리와 발을 표시하는 묘비가 세워졌으며 머리쪽은 죽어서까지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하고 있다.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와 태극마크와 한국어가 표기된 노천고기부페집과 같은 곳에서 5가지의 고기와 3가지 해물을 굽고 끓이는 맛있는 저녁과 약간의 축배로 흥겨움을 마

무리 할 무렵 도마뱀이 내 품으로 들어오는 순간 소스라쳤던 가슴을 진정시키며, 난 또 내일의 여행을 꿈꾼다.

셋째날. 녹지공간이 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하는, 공원 속의 도시 싱가포르에서, 보트리가든 산책로를 걸었다. 조깅을 하는 사람, 유모차로 아이와 산책을 하는 사람, 우리와 같은 객들. 이미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입구의 자이언트 콜라나무가 위엄 있게 버티고 있었다. 남아프리카가 고향이라 「만델라」라고 명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화 「가위손」에 나오는 동물상나무, 멍키포터리나무, 팜나무, 천리향나무를 지나 넓은 초원에 호수가 보이는 공원 백조부부의 물놀이, 한적한 이국의 풍경이었다. 자연이 준 풍요로움을 가슴으로 안으며 머무른 곳. 털보송이 소나무 앞. 가을에 낙엽 지우



고, 봄에 새싹 틔우며 겨울휴식을 취해야 하나 휴식이 없어 결국 솔잎이 힘을 잃어 털보송이가 되어 버린 털보송이 소나무를 뒤로 하고, 우린 주룡새공원의 새들을 만나러 간다. 온갖 긴 다리를 자랑하는 새, 예쁜 깃을 자랑하는 새, 예쁜 목소리를 자랑하는 새, 그리고 유리관 안의 펭귄을 보고 원형극장의 새 쇼 관람을 한다. 훈련이 잘된 앵무새, 홍학, 페리칸, 두루미의 숙련된 연기. 능청스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독수리, 매, 솔개와 같은 위엄 있는 새들의 먹이를 채가는 아슬아슬한 묘기, 그런데 “니하우마”, “곤니지와”, “탱큐”를 하는 앵무새가 “안녕하세요”를 못한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새가 있었는데 그 새가 스트레스로 혀를 깨물고 죽었다 한다. 보통 공연을 위해 언어습득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린 남진아 해의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빈탄섬을 가기 위하여 페리로 이동 45분만에 항구에 정박하고 방가로형과 같은 이국적인 느르와나 호텔에 여장을 풀고 빙탄에서의 자유를 만끽한다. 넓은 풀장과 눈앞에 펼쳐지는 남진아 해의 강렬한 태양, 부드러운 곡선의 해안선, 회색빛의 고운 백사장과 야자수, 그리고 에메랄드빛의 바다, 이 모두가 낯선 이국인에게 환상의 휴양지다. 그리고 부드러운 바다 바람과 남진아 해의 낙조를 풍경 삼아 바다 가운데의 스텝보드에서의 환상의 저녁시간 칠후 같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들의 우정은 깊어간다.

넷째날. 어제밤 모두 늦게 잠든 터라 새벽에 일출과 함께 해변산책을 생각했었지만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다. 아마 여기는 휴양지여서 모닝콜을 하지 만나보다(모닝콜을 전화가 아닌 사람이 노크 3번을 한다). 룸멤버와 아침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열대과일을 맛본다. 과일의 여왕인 망고스탄과 람보탄. 망고스탄은 석류 같은 모양으로 육쪽 마늘과 같은 모양의 과육이 달콤함만을 간직하고 입안에서 녹아 내린다. 람보탄(머리카락이란 의미), 성게 닮은 모양으로 불투명한 젤리 같은 과육이 들어있다. 이렇게 디저트로 열대과일을 맛보고 마지막 여행을 위하여 싱가포르 돌아온다.

악어농장. 공격적이고 포악한 악어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마치 배부른 돼지모양을 하고 모두들 그늘을 찾아 널브러져 잠만 자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에 평소엔 보이지 않던 사람들로 오차드 거리는 붐볐다. 토요일 오후다. 우린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최초의 교통수단인 트라이 쇼라고 불리는 일력거를 탔는데 싱가포르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지금은 자전거로 개조하였고 연세가 많은 아저씨들이 주로 일력거꾼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 29명 모두 일력거에 오르며 트라이 쇼 행진이 시작되었다. 일력거꾼의 휘바람 소리로 차도(싱가폴에서는 일력거가 자동차보다 우선 순이라고 한다)를 질주한다. 리틀인디아촌을 지나 야시장에 도착하여 가이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과일의 왕 “듀리안”, 모두들 기대에 과일을 하나씩 입으로 넣는 순간 혀끝에 느껴



지는 감촉은 바나나 맛, 그러나 코로 느껴지는 향기(?)는 처음 느끼는 냄새다. 과일 썩은 냄새! 아니 아마도 은행 썩는 냄새인 듯하다. 과일의 왕에 대한 기대가 해프닝으로 끝나고 싱가포르강의 노천식당에서 저녁을 마친 후 작은 보트를 타고 싱가포르의 근대발상지인 싱가포르강을 따라 화려한 유럽풍의 카페와 초현대식 금융가 빌딩, 그리고 내항·외항의 야경을 즐겼다.

떠나는 날. 아침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린다. 우린 짧고 긴 여행을 마치고 비 내리는 공항에 내린다.

싱가폴이 가든시티라고 불리는 것은 열대의 녹음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어서이지만, 봄의 따듯함, 여름의 푸르름, 가을의 풍요로움, 겨울의 포근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 수 있는 곳 대한민국은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란 생각이 든다. 싱가포르의 공식 일정을 끝으로 재충전의 시간, 좋은 추억으로 앨범에 남아 나와 같이 할 것이다.

좋은 여행, 좋은 시간 배려해 주신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같이한 29명 연수자, 모두가 언제나 행운이 같이하길 바란다.☞